



최 상 백

(본회 제2검정소 운영위원장)

## 제2 검정소 설립에 동참하자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이제 안정적인 생산기반 위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축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축산업계 전체로 보나, 양돈업계로 보나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양돈인들이 이 나라의 양돈산업을 개방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고, 또 합리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2검정소를 설립키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전국의 양돈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줄 믿는다.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종돈개량은 필수적이다. 종돈개량 방법으로는 능력검정을 통해 우수한 유전력을 가진 종축을 선발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정돈은 종축의 능력을 검정하여 그 성적을 기초로 엄격한 외모심사에 의한 선발을 한후, 합격된 종축을 경매토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최초로 대한양돈협회에서 '83년 9월에 공인 종돈능력검정소를 설립하여 '84년 3월부터 검정을 개시, 7월에 경매를 시작한후 현재까지 5년째 검정돈 경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돼지개량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양돈산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지만, 내적인 성장은 물론 경쟁상대국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깨를 겨누어 나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현재 생산기반이 저조한 상태에서 모돈두수는 약 77만두에 이른다. 종모돈의 수요를 10대1의 비율로 보고 2년마다 교체한다면 약 3만6천두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약 60%는 구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연간 약 2만2천두의 종모돈이 필요하다. 이중 약 40%가 등록된 종돈장에서 농장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농장이나 검정소에서 구매한다면 8천8백두의 검정돈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수요에 따라 공인된 검정소가 하나뿐인 상태에서 이토록 많은 검정종모돈을 공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한편, '88년도 농장검정으로 종료된 종모돈은 약 2천5백두로서, 이중 20%가 탈락되고 약 2천두가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었다. 또 검정소에서는 6백37두가 낙찰되어 총 2천7백여두의 검정 종모돈이 종돈개량에 공헌했으나, 약 6천여두의 종모돈은 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된 셈이다.

현재 농장검정을 실시하는 농장은 29개 농장이고, 제1검정소의 수용시설은 연간 최고 1천2백~1천3백두 정도이다. 수용시설이 부족한 여건에서 6천여두의 종모돈을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검정시설의 신증축 및 개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내 살림, 내 재산, 내 사업을 스스로 보호하고 양돈산업의 공동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몸과 마음, 뜻과 힘을 합쳐 제2검정소 설립에 적극 동참하는 길이다.

”

그리고 '89년도에 각 농장으로부터 출품, 계획두수를 접수한 결과 약 70개 종돈업 등록농장에서 2천5백두가 접수되었다. 이것을 볼때 현재의 검정소 시설로는 농장당 월 한복(2두) 이상 밖에 출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일부 개량의욕이 높은 농가에서 빠른 시일내에 제2검정소 설립을 추진해 줄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국의 검정소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검정수준을 비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90개소(1950년도), 카다다는 7개소(1928년도), 일본은 46개소(1961년도)가 설립되어 능력개량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국의 일례를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3·제4 검정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검정소 설립은 정부의 강력한 종돈개량 의지와 제1검정소의 개량효과를 인정하여 4억여원의 정부보조로 설립단계에 있다. 현재 남부지역의 돼지 사육규모는 16만3천3백호에 1백82만6천두로서 전국의 약 40%가 사육되고 있는 것은 볼 때 제2검정소 설립은 큰 기대가 요망된다.

올해는 개방화·자유화로 국내외 상황이 어렵게 변하고 있고, '88년도에 비해 개방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88년도에 약 3배가 늘어난 1천6백여톤의 돼지고기 통조림이 수입되어 국내 통조림시장의 약 30%나 침식당한 사실은 경쟁력이 없는 양돈업계로서 절박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사정을 전양돈인들은 조기에 감지해야 할 것이며, 양돈산업의 연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돈개량을 통해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외국상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생산자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제2검정소 설립을 위해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양회나 제1검정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기가 어려운 여건때문에 지난 2월 15일 본회 제2차 이사회의에서 경남북도, 전남북도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본인이 직접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양돈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는 자세로 제2검정소 업무를 대신할 각오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 살림, 내 재산, 내 사업을 스스로 보호하고 양돈산업의 공동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몸과 마음, 뜻과 힘을 합쳐 매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국의 회원 여러분과 양돈인들은 제2검정소 설립을 위한 협찬금 납부에 적극 동참하셔서 국내 종돈개량은 물론 앞으로 우리 양돈인들이 수입 개방으로부터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맞이 않는다.

끝으로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전국의 양돈인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사업번창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